

창립 26주년 기념식 _____ 직원들의 꿈을 담은 메시지

창립 26주년을 맞이한 우리 회사는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본사 1층 로비에 직원들의 사진과 메시지를 담은 대형 구조물을 전시했다. 창립 26주년을 맞이한 감회, 회사에 바라는 점,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 등 전시물에 실린 메시지와 사진을 지면에 공개한다.

패기와 열정을 갖고
다함께 도전해 나갑시다

「100년 쌍용건설을 향해 질주하는
미래를 보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사진 속 우리들의 활기찬 모습처럼
우리들의 회사 또한 앞으로 뚝뚝 커어나갈 길이며
그 꿈은 힘들었을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제부터는 사진처럼 항상 활짝 웃고
- 김준식 사원(제2건축부)

비록고 전문에게
생강배기! 우리 회사가
되겠습니다!
- 전성진 사원(제2건축부)

특히 양 사장은
IT 활용 중요하다고
- 이두원 사원(제2건축부)



1. 실력은 혁신문화의 밑거름이다.
그것을 함양하고 다독 강해지자.
2. 우리는 큰 책상과 승강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위대한 임무와 위대한
직장생활을 존중한다.
3. 신장심을 추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는 것뿐이다.
멈추지 말고 계속 달리지자.
4. 열정에 대한 추구가 깊어지면 사라져
행복에 있는 과거의 행복을 쉽게 본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지금 즉시 일어나 과거의 잘못과
결연히 직면하자.
- 김병희 과장(제2건축부)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크게, 작은 꿈에
다시 한번 성공 이상의 날개를 붙이자
- 박승철 차장(CM팀)



「나이 스물 여섯이면
두려울 것이 없는 때이다.
패기와 열정으로 뭉쳐
다함께 도전해 나갑시다.」

-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한 10년에서 15년을 재직하는 문화를 배다.
회사로서도 오랜 워라밸에서 벗어나 새로이 탄생하는 준비하고
편지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다.
어려운 시기를 같이 헤쳐온 직원들이다. 부가가치를 대하는
마음처럼 좋은 자식이면 조금 못한 자식이면 모두 다 한 자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 회사의 모습이 그립다.
- 박태웅 과장(제2건축부)
- 창립 26주년을 맞이한 우리 회사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기를 모으십시오. 그리고 더욱 열심이頑사다. 쌍용건설 파이팅!
- 김원석 부장(제2건축부)

쌍용건설 26주년을 자축하며
자, 다같이 '쌍용건설~ 파이팅'
- 2층에서 수주를 지원하는
기술영업팀 일동

- 77년에 태어난 나와 쌍용건설에 무궁한 열정이 있기를—
- 김광석 사원(기획부)
- 쌍용건설의 미래입니다. 쌍용건설의 25년에 힘입어
저에게는 의미가 큼니다.
특정은 배, 특장은 앞에 태어난가 때문입니다.
힘없는 패기로 간세기 최고의 건설회사를 만드는데 동참하겠습니다.
쌍용건설 함께와 7.8일은 여기 온다.
- 문종길 사원(기획부)

- 일찍이 달려온 26년 앞으로 더욱 힘차게
- WTI 출범을 위하여, 그리고 제2의 도약을 위하여
- 앞장, 배짱, 정통의 모험 살며! 항상 즐겁게 생활하자구요~
-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정을 서로가 있어 행복하더구나
- 누가 우리 부서를 넘어야 부르나~
- 기전부 생애일

이제 겨우 26살
한살 일할 권력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춘기의 질풍 노도의 시기도 지나고
날들 다 다나오는 근대의 흑흑도
이제 곧 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앞날을
맞고 우아한 승리의 모습을 향한다는 것을
감상해야겠습니다.
- 한살이 사후부지개발부



언제나 행복하게 생각하고,
일할 때가 늘 재능과 힘 어울리고,
지배력이 있고 힘을 수가 있으며,
매사에 흥미와 정열이 있고,
난관에 부딪히면 이성을 잃지 않고,
오직 배를 앞방으로
보내며 달려온우리를 성공한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조원들 7명으로 다시 태어난
쌍용건설의 미래와 함께 할 우리들이
우리 모두 쌍용건설 26주년을 축하하며,
새롭게 다짐을 내걸고 함께 일어섭시다.
- 한살이 사후부지개발부



26년 전통 역사는 수많은 역경과 성공의 길을 걸어왔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300년의 역사, 아니 그 이상의 쌍용건설이라는 확고한 그레질 역사는
영광분할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역사의 다짐을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원은 26살쯤이면 가정을 이루고 2세를 출산해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제 쌍용건설도 창립년으로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기 '포복공시부'는 방울 역사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쌍용건설 800명!
- 포복공시부



「정말 긴 터널을
서로 의지하며
지나왔습니다.
터널 끝의 드넓은
세상이 있기에
생각만해도 기쁩니다」



우리 회사는 10월 17일 항공회관 대강당에서 김석준 회
장과 기순홍 감사장을 비롯한 본사 임직원 및 장기근속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6주년 기념식을 개최
했다.
김석준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올레가 워크아웃 이후 경상
이익을 실현하는 첫 해"라며, "특히 원년으로 재출발하는
성과를 이루어낸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철
저한 자금관리 및 유동성 확보를 통해 위기관리 능력을 제
고하고, 급속한 시장변화를 영업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남은 기간 경영실적을 재점검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내년에는 과거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일류기업으로서의 자부심
을 가지고 창립기념일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창립기념식에서는 최장식 전무를 비롯한 25년
근속자 3명과 20년 근속자 12명, 15년 근속자 17명, 10
년 근속자 55명 등 장기근속자 총 87명에 대한 포상이 있
었다.



26년 근속 및 20년 근속 수상자